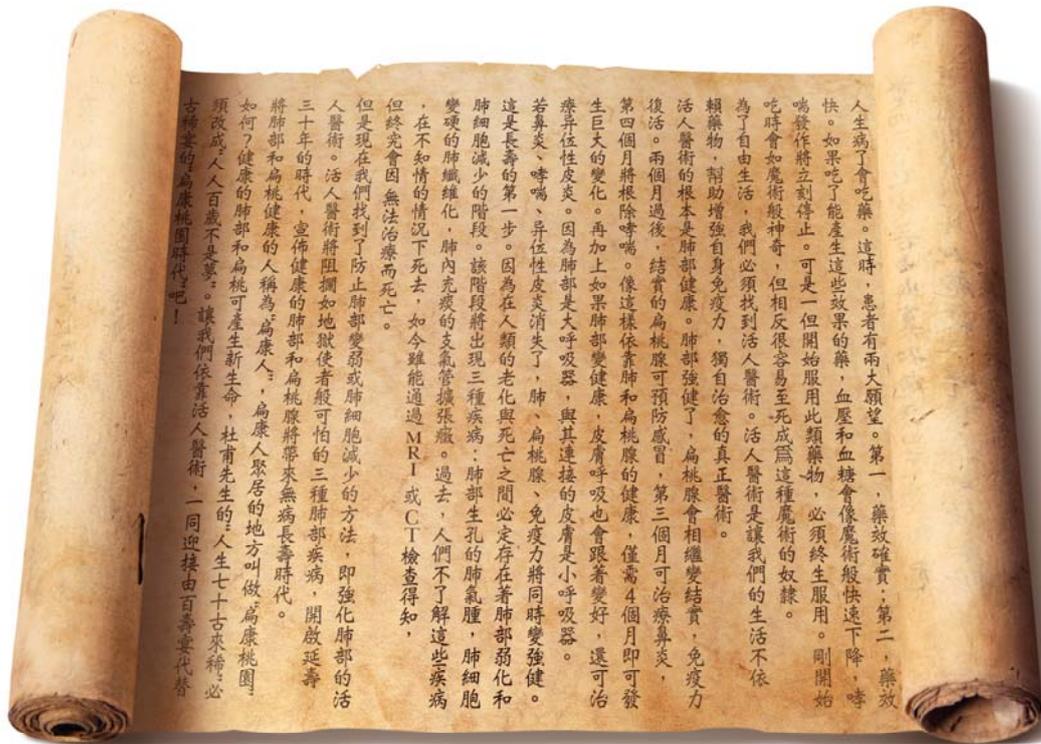


심장과 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새 생명의 답은 이 책에 있다.



活人醫術

활인의술 (뉴욕 선언문)

사람이 살다가 병이 나면 약을 찾는다. 이 때 환자는 두 가지를 바란다. 첫째, 약효가 확실할 것. 둘째, 약효가 빠를 것. 그 결과로 탄생한 약들을 먹으면 마술처럼 혈압과 혈당이 뚝뚝 떨어지고, 천식 발작도 바로 멎는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일단 복용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마술처럼 신기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역으로 죽을 때까지 그 마술의 노예가 되기 일수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활인(活人)의술을 찾아야 한다. 활인의술은 내 생활을 약에 매어놓지 않고 면역력을 키워서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진정한 의술이다.

활인의술의 근본은 폐 건강이다. 일단 폐가 강해지면 다음으로 편도선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살아난다. 튼튼한 편도선은 두 달이 지나면 감기를 예방하고, 석 달째는 비염을 치료하고, 넉 달째는 천식의 뿌리를 뽑는다. 이렇듯 폐와 편도선의 건강을 통해 4개월만에 큰 변화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폐가 건강해지면 피부 호흡까지 좋아져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 폐는 큰 호흡기, 피부는 그와 연결된 작은 호흡기이기 때문이다.

비염, 천식, 아토피가 사라졌으면 폐, 편도선, 면역력이 함께 강해진 것이다. 이것이 장수의 첫걸음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화와 죽음 사이에 반드시 폐의 약화와 폐세포 감소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세 가지 병으로 나타난다. 폐에 구멍이 생기는 폐기종, 폐세포가 굳어가는 폐섬유화, 폐에 가래가 들어차는 기관지 확장증이다. 과거에는 이 병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채 죽어갔지만, 지금은 MRI나 CT를 통해 알게 되지만 결국 치료를 못 해서 죽어간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폐가 약해지거나 폐세포가 감소하지 않는 방법, 즉 폐를 강화하는 활인의술을 찾아냈다. 저승사자와도 같은 세 가지 폐질환을 막아서 추가 생명 30년을 맞이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건강한 폐와 편도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병장수의 시대를 선포하고자 한다.

폐와 편도의 건강을 이룬 사람을 '편강인(扁康人)'이라 부르고, 그런 편강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편강도원(扁康桃園)'이라 부르는 게 어떨까. 폐와 편도의 건강으로 새 생명이 생기니, 두보선생의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는 마땅히 '인인백세불시몽(人人百歲不是夢)'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고희연(古稀宴)을 100수연(百壽宴)으로 대체하는 '편강도원 시대'를 활인의술을 통해 다 함께 맞이하자.